

지역 기초자료
17-02

2017년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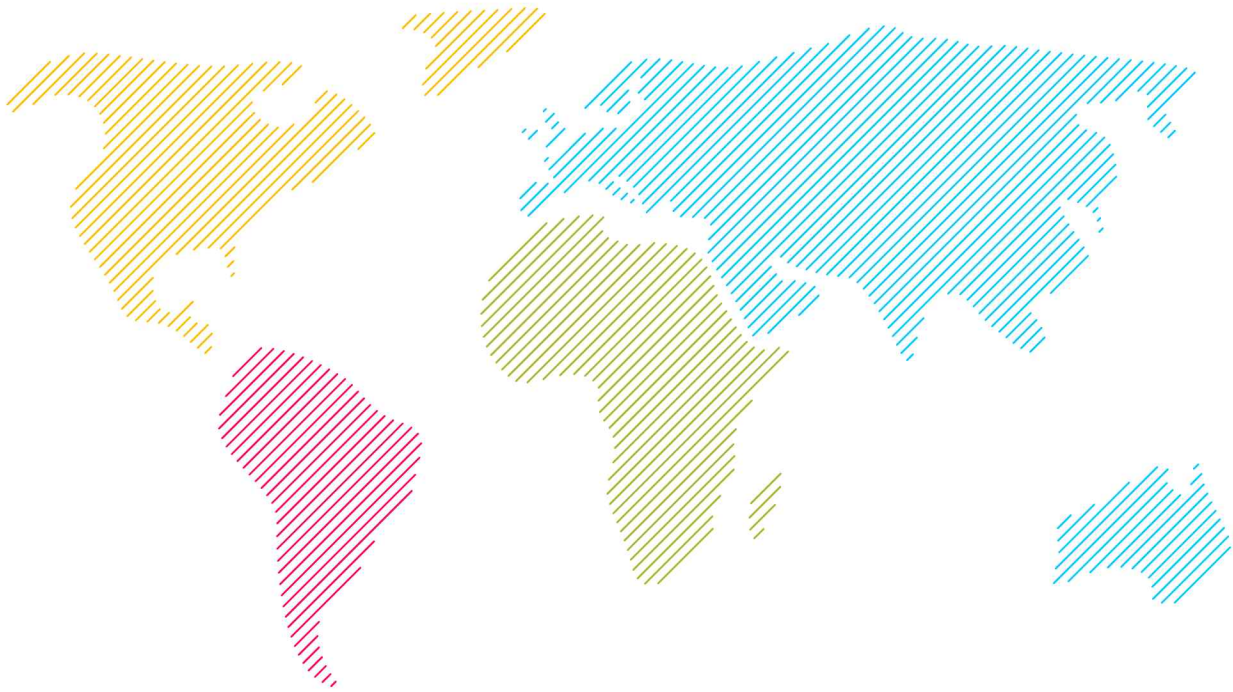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이상훈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김홍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김주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요약

- ▶ 2017년 1~2월 허베이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지방양회가 개최되었고, 주로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정책, 환경문제 등이 논의됨.
 -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대다수 지역에서 최우선 정책목표로 과잉생산 해소를 비롯한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을 제시
 - 또한 국유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경영 효율성 제고,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지난해 각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
 - 부동산과 환경 이슈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동산 공급과잉 완화 및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 환경부문의 관리감독 강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움.
- ▶ 2016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지역협력 발전, 신성장동력 모색, 산업구조조정 등을 2017년 핵심 업무로 제시함.
 -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베이징·톈진은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전략을, 상하이에는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중점 추진하며, 허베이와 광둥은 각각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제시
 - 중부지역은 각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상이하며, 후베이는 투자·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둔 반면, 산시(山西)는 성장보다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석탄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
 - 대다수의 서부지역은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왔고 2017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며, 충칭과 산시(陝西)는 이에 더해 신성장동력 모색, 지주산업의 고도화, 자원의존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강조
 - 동북지역은 성장둔화 타개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농업부문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 산업고도화의 진전,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혁신능력의 증대 등 공급측 개혁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의 등락보다는 2017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2017년 각 지방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보호 강화, 지역간 산업재배치, 서비스 소비 촉진 등 정책변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건요
 -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환경오염 유발사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분야 협력수요가 증대할 전망
 - 징진지 협동발전정책에 따라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산업재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진입제한 및 협력 유망업종의 변화가 예상
 - 중부지역의 후베이, 동북지역의 헤이룽장은 각각 서비스 소비 촉진 및 농업분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입 고도화와 서비스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국 내 공급이 어려운 고급 소비재나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설비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소비 진작 중점분야인 관광·의료·문화·레저 등에서의 수출 및 투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2017년 지방양회 주요 이슈
2. 2016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7년 경제정책의 특징
 - 가. 지역별 경제성장 비교
 - 나. 2017년 경제정책의 특징
3. 주요 지역의 2017년 핵심 정책
 - 가. 동부
 - 나. 중부
 - 다. 서부
 - 라. 동북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2017년 지방양회 주요 이슈

■ 2017년 1~2월 허베이(河北)를 시작으로 31개 성시(省市)에서 지방양회를 개최, 2016년 경제성과와 2017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베이징(北京), 지린(吉林) 등 11개 지역의 지방정부 행정수장이 새롭게 임명

- 각 지방정부에서는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기조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여 2017년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발표함.
- 올해 지방양회의의 주요 이슈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¹⁾·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개혁이 거론되었으나, 개혁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되는 기조를 보임.
 - 중국정부는 2013년 이래 ‘안정 속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경제운용 방향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7년을 ‘공급측 개혁 심화의 해’로 설정
 - 13·5 계획기간(2016~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 핵심 논리는 ‘개혁-혁신-총요소생산성(TFP) 제고-성장’이며,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발전목표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²⁾
- 양회기간 베이징(北京), 지린(吉林),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윈난(云南), 시짱(西藏), 칭하이(青海)의 부급(副級)에 해당하는 대리 시장(市长) 및 성장(省长)이 정급(正級)으로 승진³⁾

■ 과잉생산 해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지방양회에서도 2017년 중점업무로 꼽혔으며, 특히 에너지·자원 등 원자재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과잉생산 해소노력이 주목받았음.⁴⁾

-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잉생산 해소를 2016년 공급측 개혁의 5대 업무 중 최우선순위로 삼았으며 대다수 지역에서 「정부업무보고」 서두에 과잉생산 해소를 포함한 공급측 개혁의 추진 성과를 명시
- 특히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윈난(云南), 산시(陕西) 등은 2016년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생산 감축량 초과달성을 업무 성과로 내세움.
- 이는 중앙에서 지역마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부과하고 직접 감찰하였을 뿐 아니라 폐쇄명령을 어긴 기업체 및 해당 지방 정부 책임자를 파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
- 2016년 12월 국무원은 장쑤(江苏)와 허베이(河北) 철강회사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와 기업 및 각급 지방정부의 책임자 138명을 문책한 내용을 공고⁵⁾
- 2017년 철강, 석탄의 주요 생산지인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허난(河南)의 목표 감축량이 가장 많으며, 감축대상이 2016년에는 미가동·휴업상태인 업체에 집중되었다면 2017년에는 가동 중인 업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1) 공급측 개혁은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부동산재고 해소(去库存), 레버리지율 감소(去杠杆),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유효공급 확대(补短板)를 의미함.

2) KIEP 북경사무소(2016. 11. 3), 「중국경제 평가와 중장기 변화」, 『한중경제포럼』.

3) 「28省市地方两会闭幕 百余名省领导履新」(2017. 1. 24), 人民网.

4) 「28省市召开地方两会 “去产能”仍是2017工作重点」(2017. 1. 18), 人民网; 「2017年路线图将划定 钢铁煤炭行业去产能再发力」(2017. 1. 26), 中国证券报.

5) 「党中央国务院严肃处理两起钢企违法违规事件 确保政令畅通 令行禁止」(2016. 12. 26), 新华社; 国务院办公厅(2016. 12. 29), 「关于江苏华达钢铁有限公司和河北安丰钢铁有限公司违法违规行为调查处理情况的通报」.

- 부채 증가, 수익률 저하 등 국유기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 국유기업의 운영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에 따르면 2016년 기업 부채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유기업, 한계기업의 채무관리에 어려움이 큰 상황⁶⁾
 -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고 운영효율이 낮은 기업을 청산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보호, 고용창출 문제 등과 맞물려 경쟁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최근 중앙 국유기업 관련 개혁 조치가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2016년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세칙방안 및 시범 계획을 발표하여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개혁안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⁷⁾
 - 2015년 9월 이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18개 문건을 잇달아 발표하며 개혁에 속도를 냄.⁸⁾
 - 2017년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을 필두로 지난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이 실제로 추진될 전망⁹⁾
 - 일례로 베이징은 IT·자동차 등 전략적 육성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태산업에 속하는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기업의 합병·매각·파산을 추진하여 지방 국유기업의 수는 줄이되 영업이익률을 높이고자 함.¹⁰⁾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2016년 정책기조가 부동산 공급과잉 완화였다면 2017년에는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가 주요 정책목표가 될 전망¹¹⁾
 -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에 따르면 2016년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 소도시는 부동산 과잉공급이 증가하여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었음.¹²⁾
 - 대도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한 반면, 소도시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과잉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
 - 2016년 부동산 공급과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국면에서 올해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주목을 받았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기조로 삼음.
 - 투기매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일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품 해소·관리를 강조
 - 한편 지역별 부동산 수급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며 도시 단위로 각기 다른 정책수단을 취함.
- 환경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방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이며, 특히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이하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의 스모그 관리가 부각되고 있음.¹³⁾

6) KIEP 북경사무소(2017. 1. 25), 「2016년 중국 거시경제 평가와 2017년 전망」, 『한중경제포럼』.

7) 「中国国企改革：从改什么到怎么改」(2016. 5. 10), FT中文网.

8) 「国企改革呈现四大趋势 首批混改试点即将启动」(2016. 11. 14), 证券日报.

9) 「2017：地方国企 改革落实之年」(2016. 12. 13), 中国企业报.

10) 「国企改革的北京探索」(2017. 2. 5), 经济日报.

11) 「继续吹响供给侧改革号角——聚焦今年地方两会」(2017. 1. 23), 人民网; 「地方两会定调楼市“促稳”成关键词」(2017. 1. 19), 21世纪经济报道.

12) KIEP 북경사무소(2017. 1. 25), 「2016년 중국 거시경제 평가와 2017년 전망」, 『한중경제포럼』.

13) 「2017年环境污染怎么治?多地定下“小目标”」(2017. 1. 19), 中国新闻网; 「地方两会看京津冀治霾：“减煤”成今年重点 主政者频表态」(2017. 1. 17), 人民网.

- 2016년 2월 중국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리스크·손실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며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 이행을 강조¹⁴⁾
- o 중국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으나 2013년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이 전체 GDP의 10%에 달함¹⁵⁾
- 이번 지방양회에서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지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치 달성여부가 주목을 받음.
- o 이들 지역은 2016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올해 주요 대응조치로서 석탄사용 감축을 강조
- 이외 각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양회에서 정부 운영 성과에 환경오염 관리지표를 포함시키고, 환경법 집행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편제를 구축하며 처벌을 보다 강화할 계획

2. 2016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7년 경제정책의 특징

가. 지역별 경제성장 비교

-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한 가운데 각 지역(省)의 성장률은 대체로 경제가 낙후된 서부지역의 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성장률은 낮은 동저서고(東低西高)의 특징을 보임(표 1 참고).
- 전체 31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등 21개 지역이 지난해 초에 제시하였던 목표성장률을 달성
- o 각 지방정부는 경제구조 개혁,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2015년보다 낮은 2016년 성장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목표치 달성
- 지역별로 볼 때 2016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시짱(11.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칭(10.5%)과 구이저우(10.5%) 순이었음.
- o 이들 세 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14년 이래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에 허베이, 산시, 랴오닝, 후베이 등 10개 지역이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실적과 목표치 간 격차는 랴오닝(8.5%p)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산시(1.5%p), 후베이(0.9%p) 순이었음.
- o 산시의 경우 석탄의 과잉생산 해소에 따른 산업생산 둔화가 성장률 목표 미달로 이어졌으며, 후베이의 경우 민간투자가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¹⁶⁾
- o 랴오닝은 고정자산투자 급감과 이에 따른 산업생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5년(3.0%)에 이어 2016년(-2.5%)에도 중국 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¹⁷⁾

14) 「中国环境问题包含环境污染严重、环境风险高, 生态损失大三方面」(2016. 2. 18), 中国政府网.

15) "Air pollution costs trillions and holds back poor countries, says World Bank"(2016. 9. 8), *The guardian*.

16) 王雷軒(2017), 「地方の『两会』からみる2017年の中国経済-17年も成長減速が続く可能性」, 『金融市場』2017年2月号, 農林中金総合研究所.

17) 랴오닝은 중국 내에서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과거 공업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2차 산업의 발전과 규

- 지역별 경제규모를 보면 2015년 3조 위안을 넘어선 지역은 6개 지역(광둥, 장수, 산둥, 저장, 허난, 쓰촨)이었으나 2016년에는 후베이, 허베이, 후난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9개 지역으로 증가
- o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큰 지역은 광둥성(7조 9,512억 위안)으로 28년 연속 최대 경제규모를 유지함.
- o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광둥)과 가장 작은 지역(시짱) 간 69.1배의 규모 격차가 존재하나 2010년(89.4배)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다소 줄어들면서 지역간 경제성장의 양극화 문제는 소폭 완화

표 1. 중국의 지역(省)별 주요경제지표 비교

(단위: 억 위안, %)

권역	지역(省)	지역내총생산 (GRDP, '16년)	GRDP 성장률			산업별 성장률('16년)			소비 증가율 ('16년)	투자 증가율 ('16년)
			'16년 목표	'16년 실적	'17년 목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중국 ^{주)}		744,127	6.5~7.0	6.7	-	3.3	6.1	7.8	10.4	8.1
동부	베이징(北京)	24,899	6.5	6.7	6.5 전후	-8.8	5.6	7.1	6.5	-
	톈진(天津)	17,885	9.0	9.0	8.0	3.0	8.0	10.0	7.0	12.0
	허베이(河北)	31,828	7.0 전후	6.8	7.0 전후	3.5	4.9	9.9	10.0	9.0
	산둥(山东)	67,008	7.5~8.0	7.6	7.5 전후	3.9	6.5	9.3	-	-
	상하이(上海)	27,466	6.5~7.0	6.8	6.5	-6.6	1.2	9.5	8.0	-
	장쑤(江苏)	76,086	7.5~8.0	7.8	7.0~7.5	0.7	7.1	9.2	10.9	-
	저장(浙江)	46,485	7.0~7.5	7.5	7.0 이상	2.7	5.8	9.4	11.0	-
	푸젠(福建)	28,519	8.5	8.4	8.5 전후	3.6	7.3	10.7	11.1	9.3
	광둥(广东)	79,512	7.0~7.5	7.5	7.0 이상	3.1	6.2	9.1	10.2	10.0
중부	하이난(海南)	4,045	7.0~7.5	7.5	7.0 이상	4.1	5.1	10.1	9.7	11.7
	산시(山西)	12,928	6.0 전후	4.5	5.5 전후	2.9	1.5	7.0	7.0	1.0
	허난(河南)	40,160	8.5 전후	8.1	7.5 이상	4.2	7.5	9.9	11.9	13.7
	안후이(安徽)	24,118	8.5 전후	8.7	8.5 전후	2.7	8.3	10.9	12.3	11.7
	장시(江西)	18,364	8.5 이상	9.0	8.5 전후	4.1	8.5	11.0	12.0	14.0
	후베이(湖北)	32,298	9.0 전후	8.1	8.0 전후	3.9	7.8	9.5	11.8	13.1
	후난(湖南)	31,245	8.5 전후	7.9	8.0 전후	3.3	6.6	10.5	11.7	13.8
	네이멍구(内蒙古)	18,633	7.5	7.2	7.5 전후	3.0	6.9	8.3	9.7	12.0
	광시(广西)	18,245	7.5~8.0	7.3	7.5 전후	3.4	7.4	8.6	10.0	13.0
서부	충칭(重庆)	17,559	10.0 전후	10.7	10.0 전후	4.6	11.3	11.0	13.2	12.1
	쓰촨(四川)	32,681	7.0 이상	7.7	7.5 전후	3.8	7.5	9.1	11.7	12.1
	구이저우(贵州)	11,734	10.0	10.5	10.0	6.0	11.1	11.5	-	21.1
	윈난(云南)	14,870	8.5 전후	8.7	8.5 전후	5.6	8.9	9.5	12.0	19.8
	시짱(西藏)	1,150	10.0 이상	11.5	11.0 이상	-	-	-	12.0	20.0
	산시(陕西)	19,165	8.0 전후	7.6	8.0 전후	4.0	7.3	8.7	11.0	12.3
	간쑤(甘肃)	7,152	7.5	7.6	7.5	5.5	6.8	8.9	9.0	10.5
	칭하이(青海)	2,572	7.5 전후	8.0	7.5 전후	5.4	8.5	8.0	11.0	10.9
	닝샤(宁夏)	3,150	7.5	8.0	8.0 전후	4.5	7.8	9.1	7.5	10.0
	신장(新疆)	9,617	7.0 전후	7.6	7.0 이상	5.5	5.6	9.9	8.2	-
동북	랴오닝(辽宁)	22,038	6.0 전후	-2.5	6.5 전후	-	-	-	-	-
	지린(吉林)	14,886	6.5~7.0	6.9	7.0 전후	3.8	6.1	8.9	9.8	10.0
	헤이룽장(黑龙江)	15,386	6.0~6.5	6.1	6.0~6.5	-	-	-	10.0	5.5

주: 중국 GDP는 지방통계국이 발표하는 GRDP의 합이 아니라 국가통계국에서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전국 데이터로, 물가수준과 집계되는 항목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GRDP의 합과 불일치함.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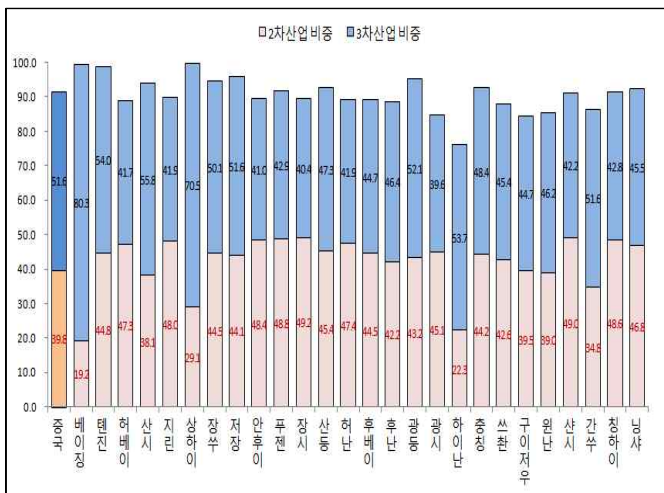
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최근 랴오닝성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2014년) → -27.8%(2015년) → -63.5%(2016년)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산업별 성장률에서 충칭과 칭하이 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을 크게 압도하였음.
- o 산업별 비중에서도 26개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특히 베이징(80.3%)과 상하이(70.5%)가 중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o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장시(49.2%), 산시(49.0%), 푸젠(48.8%) 등은 여전히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였으나, 이들 지역도 3차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특히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경우 대체로 소비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우 투자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투자 주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
- o 소비 증가율이 투자 증가율을 상회한 지역은 광둥, 충칭 등 7개 지역이었으나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던 지역은 톈진, 하이난 등 16개 지역이었으며, 특히 구이저우와 시짱은 투자 증가율이 20%를 상회함.
- o 중서부 내륙지역 가운데 산시, 안후이, 장시, 구이저우, 윈난, 시짱,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은 2016년 고정자산투자(全社会固定资产投资) 규모가 GRDP를 초과

그림 1.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산업별 비중(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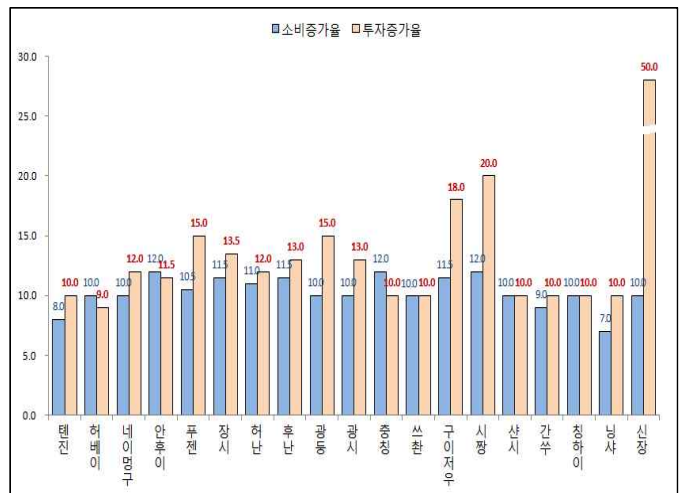
(단위: %)



주: 네이멍구, 랴오닝, 헤이룽장, 시짱, 신장은 2016년 산업별 부가가치 미발표.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CEIC.

그림 2. 지역(省)별 2017년 소비 및 투자 증가율 목표치

(단위: %)



주: 「정부업무보고」에서 2017년 소비와 투자의 목표증가율을 제시한 지역만 표시.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보다 공급측 개혁이나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개혁이 중시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2016년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2017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¹⁸⁾

- 허베이, 산시, 광시, 랴오닝 등 6개 지역이 2017년 목표성장률을 2016년의 실적치보다 높게 설정한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목표성장률을 낮추거나 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목표치를 제시

18) 각 지방정부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2017년 목표성장률에서도 ‘~% 전후’ 또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과잉생산 해소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성장의 속도보다 대기오염 개선, 빈곤 퇴치, 민생 보장과 개선 등 경제의 질적 발전에 주력할 계획
-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며,¹⁹⁾ 특히 경제발전이 뒤처져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 높은 인프라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증가율을 제시(그림 2 참고)

나. 2017년 경제정책의 특징

-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안정 속 개혁 추진’이라는 정책기조를 따르면서 세부적으로는 공급측 개혁, 혁신주도형 발전, 실물경제 진흥, 지역 균형발전, 대외 개방, 민생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각 지방정부는 공급측 개혁의 심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무리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계획²⁰⁾
- 2016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도 공급측 개혁을 2017년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총수요의 적절한 확대와 혁신주도형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각 지방정부는 양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정책과제들을 채택한 가운데, 지역별 경제현안을 고려한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
-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등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공급측 개혁을, 중서부지역은 실물경제 진흥이나 경제구조의 전환 및 고도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반영
- 상하이, 저장 등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의 경우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의 증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
- 베이징과 톈진은 역내 최대 당면과제인 징진지 협동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과 재조정을 가속화할 방침

표 2. 2017년 중국의 지역(省)별 최우선 정책과제 비교

최우선 정책과제	해당 지역
공급측 개혁(供給側結構性改革)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헤이룽장, 안후이, 푸젠, 산둥, 윈난,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실물경제 진흥	지린,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쓰촨
징진지 협동발전	베이징, 톈진
중요 영역에서의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저장, 랴오닝
기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발전), 충칭(산업고도화), 신장(사회안정 유지)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산시, 네이멍구, 푸젠, 산시 등 11개 지역에서 공급측 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철강과 석탄 등 원자재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잉생산 해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헤이룽장, 지린, 허베이, 간쑤 등은 농업부분에서의 공급측 개혁을 중시

19) 2017년도 목표치를 제시한 19개 지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제시하였음.

20) 저장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공급측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함.

- 중국 내 주요 철강생산지인 허베이, 주요 석탄생산지인 산시와 네이멍구는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계획
 - o 산시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급측 개혁을 선정하고 석탄 생산능력 2,000만 톤 감축과 철강 생산능력 170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강도 높은 감축이 이루어진 작년의 실적(각각 2,325만 톤, 82만 톤)과 유사한 규모
 - o 허베이 역시 연내 제강 1,562만 톤, 제철 1,624만 톤에 달하는 철강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제시
-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잉생산능력 해소 노력이 각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철강이나 석탄 등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농업부문 공급측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민소득의 증대 및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생산능력의 보장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확대, 식량수매제도 개혁,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음.
 - o 그밖에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화 발전 촉진,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과 적정규모의 경영 발전, 도급경영권 등 농촌토지 재산권 확립, 농업의 규모화발전 촉진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

표 3. 2017년 주요 지역별 과잉생산시설 감축 목표

지역	주요 내용
허베이	-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감축 우선 추진: 연강 1,562만 톤 및 연철 1,624만 톤 감축, 한계기업 정리 - 기타 산업에서의 과잉생산능력 감축 목표: 석탄 742만 톤, 시멘트 110만 톤, 판유리 25만 톤
산시	- 환경보호·에너지 소비·안전 등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업의 M&A와 구조조정추진 - 석탄산업의 과잉생산능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연내 2,000만 톤 감축, 철강 생산능력 170만 톤 감축
네이멍구	- 과잉생산설비에 대한 감축 노력 지속,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합격 제품과 표준미달 제품의 생산설비 퇴출 - 과잉생산 업종에서의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이미 감축된 분야에서의 생산량 확대를 엄격히 통제 - 철강 55만 톤, 석탄 120만 톤의 생산능력 감축 실현
산둥	- 철강·석탄·시멘트·판유리·전해 알루미늄·선박·정유·타이어·화학 등 산업에서의 과잉생산능력 감축 - 설비자동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생산설비 조정 적극 유도 - 생산능력 감축 목표: 철강 387만 톤, 조강 280만 톤, 석탄 351만 톤
산시	- 표준에 미달한 탄광 폐쇄, 철강기업 구조조정 추진, 경쟁력 없는 시멘트기업 조업 중지
기타	- 석탄: 료오닝(연생산량 9만 톤 이하인 탄광 179곳 폐쇄), 지린(연생산량 15만 톤 이하의 탄광 폐쇄, 석탄생산능력 314만 톤 감축), 안후이(과잉생산능력 감축을 위한 연간 목표 달성, 감축부문에서의 신규설비 투자 불허), 허난(과잉생산능력 2,000만 톤 감축), 후베이(2년 내 역대 석탄생산 전면 중단), 윈난(생산능력 154만 톤 감축), 구이저우(탄광 120 곳 폐쇄, 생산능력 1,500만 톤 감축), 칭하이(생산능력 132만 톤 감축) - 철강: 텐진(연강 생산능력 180만 톤 감축), 지린(연철 생산능력 80만 톤 감축), 안후이(과잉생산능력 감축을 위한 연간 목표 달성, 감축부문에서의 신규설비 투자 불허), - 시멘트: 지린(생산능력 500만 톤 감축)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중서부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실물경제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초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소비의 확대,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과도한 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실물경제 진흥을 공급측 개혁과 함께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속의 개혁 추진이라는 정책기조를 관철하고자 함.
- 특히 중서부 내륙의 많은 지역에서 실물경제 진흥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시, 쓰촨, 후베이 등의 지역에서는 올해 추진할 중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표 4 참고).

표 4. 중서부 주요 지역의 2017년 실물경제 진흥정책

지역	주요 내용
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자 확대: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980개 주요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에 1조 4,000억 위안 투자 - 소비의 잠재력 발굴: '여행 플러스'의 융합발전 추진으로 18개 국가급 여행시범구 설립, 양로·건강·의료 등 서비스기관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의료여행선행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건강 및 실버산업 관련 소비 촉진 - 실물경제 진흥: 감세 및 원가 절감 확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혁신, 선도기업의 규모화 발전 지원
허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 발전 촉진 우선 추진, 은행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직접금융을 발전시키고 용자규모 8,000억 위안 달성 - 소비구조 고도화: 서비스소비 확대, 여행·건강·스포츠레저·녹색소비 등의 장려, 고급제품 유효공급 확대 - 유효투자 확대: 민용 공항·전신·사회서비스 등 영역에 대한 민간투자 장려, 연내 1조 8,000억 위안 투자 달성
후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자 확대 및 소비구조 고도화 추진 - 실물경제 진작: 각종 생산요소의 실물경제 투입 유도, 첨단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 중시, 법률에 의거한 각종 소유제 법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와 민간자본의 협력모델 대대적 보급, 성정부 관할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 상호 투자 및 인수합병 장려
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산업기초와 부존자원에 입각한 우위산업 발전 촉진,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 - 300개 중요 프로젝트 실시: 교통인프라 구축, 황화(黄花)공항 3청사 착공, 특고압 직류배전프로젝트 착수, 농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정보안전산업단지 건설 추진, 물류배송체계 완비 - 소비고도화: 여행·문화·스포츠·건강·양로 등 5대 서비스산업 소비 촉진
쓰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자 확대: 중국전자(中电) 액정디스플레이 8.6세대 생산라인, 쓰촨-충칭 간 전력망 구축, 시안~청두 간 여객전용철도 건설 등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첨단제조업 발전: 5대 첨단산업과 웨도교통·그래핀 등 중점산업 육성, 전자정보·식품·자동차·바이오의약 등 발전 추진, 항공우주·정보보안 등 특색산업단지 건설 가속화, 국가빅데이터클러스터 건설, 스마트제조·녹색제조·산업용 사물인터넷·산업용 빅데이터 혁신응용 등 시범사업 추진 - 중서부 전자상거래 혁신창업창의센터 건설, 문화창의·음악레저·스포츠산업 적극 발전, 가정서비스와 양로의료산업 육성에 주력
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전면 실시, 품질 개선 및 지역브랜드 강화 추진, 신기술·신제품·신업체·신모델의 발전 가속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촉진 - 전통산업의 고도화: 설탕·알루미늄·기계·야금 등 전통산업의 생산구조 최적화 - 신흥산업의 규모화 발전: 전자정보·바이오제약·해양산업·신소재 등 산업특색이 분명한 신흥산업기지 건설 - 첨단제조업 발전 가속화: 웨도교통장비·해양공정장비·스마트제조장비·신에너지자동차 등 첨단제조업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달성
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전략의 실시 및 빅데이터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 발표, 디지털경제와 스마트제조 발전 촉진 - 중국이동(移动)·련통(联通)·전신(电信)·화웨이(华为)·바이두(百度)·랑차오(浪潮)·민군융합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으로 중앙부처나 금융기관의 역대 빅데이터센터 설립 유지
네이멍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확대: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관련 중점분야 7,000억 위안, 철도·도로·수리·통신망 등 인프라분야 3,000억 위안 등 고정자산투자 1조 7,000억 위안 이상 달성 - 중국 북방지역 빅데이터 센터 및 '브로드밴드 네이멍구' 건설, 정보화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견인 - 소비수요 확대: 여행·문화·스포츠·건강·양로·교육훈련 등 영역을 중점으로 신흥 서비스소비 확대, 농촌·목축지역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로 소비잠재력 발굴 - 전통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 석탄·전력·화학·야금산업에서의 전략적인 구조조정 장려 - 지원정책의 완비와 중점산업 발전기금 설립으로 신에너지·신소재·빅데이터·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첨단장비·바이오과학기술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부 지역에서는 체제개혁의 심화와 국유기업 개혁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강조

- 상하이, 저장, 랴오닝 등 일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체제개혁의 심화와 시장경제의 활력 증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
-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제도 개혁의 심

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시장화된 경영메커니즘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

-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주요 업무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항공, 전신, 군수 등의 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

표 5. 2017년 주요 지역별 개혁 과제

지역	주요 내용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간소화 및 하부조직으로의 권한 이양 - 국유기업·조세·금융·사회보험 등 핵심 영역에서의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신용시스템 건설을 강화하여 경제체제개혁의 건인효과를 발휘하도록 함. - 해양경제발전시범구·저우산군도(舟山群岛)신구·이우(义乌) 국제무역종합개혁·윈저우(温州) 금융개혁·타이저우(台州) 마이크로금융개혁·닝보(宁波) 보험개혁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개혁 심화
쓰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현대적 기업제도 완비, 국유기업의 규모화 발전 지원 - 국유기업 재산권의 다원화 추진으로 혼합소유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에 주력, 국유기업의 이윤 10% 이상 제고
랴오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영역에서의 개혁의 가속 추진,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최적화, 정부기능의 전환 가속 - 현대적 기업제도 건립 및 완비, 지방 국유기업(省辖企业)에 대해 1,000억 위안 규모의 자본유치 - 국유기업의 체질 강화와 효율성 증대, 성 관할 국유기업의 자산대비 부채율 5%p 감축, '3항 비용' 5% 감축 - 국유기업의 이윤율과 조세율 및 노동생산성 제고 - 민영경제의 대대적인 발전, 민간자본의 산업 진출 완화, 중소형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원활화
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기업 핵심경쟁력과 자원배분 효율 제고를 목표로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형성,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 장려, 국유기업의 규모화 발전 촉진

자료: 각 성(省)별 2017년「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부 지방정부는 전통제조업의 기술 개조 및 고도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과 연계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 추진

- 허베이, 지린, 랴오닝, 지린 등은 기술 개조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촉진
- 광시, 충칭, 랴오닝, 허난 등은 R&D 강화와 혁신, IT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의 규모화 발전과 신홍산업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고도화를 달성할 계획

표 6. 2017년 주요 지역별 제조업 고도화의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허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기능의 개조 및 고도화 가속화: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3년 계획 추진, 산업용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시범사업·'인터넷 플러스' 등 중점 프로젝트 개시
지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첨단장비제조업의 발전 촉진 - 통화(通化) 국가의약첨단기술구 발전 지원 - 자동차산업: 신에너지자동차·독자브랜드자동차를 중점 육성, 이치(一汽)자동차그룹의 역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259만 대 달성 - 장비제조업: 고속철 전동차량 연구개발 가속화, 민용 항공우주 데이터정보 및 첨단장비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조업 발전 가속화: 웨도교통장비·해양공정장비·스마트제조장비·신에너지자동차 등 중점 발전 - 공업 총생산액 대비 첨단제조업 생산액 비중 30% 달성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산업 개조 및 고도화: 방직, 의류, 피혁, 화공, 화학섬유, 제지, 고무와 플라스틱, 건축자재, 비철금속가공, 농부 식품가공, 도소매 등 '10+1' 전통산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도화 달성

표 6. 계속

지역	주요 내용
랴오닝	-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촉진: 장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항공장비·로봇 및 스마트 장비·첨단수치제어·자동차 등 8대 중점영역의 발전 가속화 - 첨단기술산업의 규모화 발전 추진: 민용항공·해양공정장비·바이오의약·신에너지·신소재·차세대 정보기술 등 신흥산업의 중점 발전
충칭	- 전략적 신흥제조업의 규모화 발전: 중요 프로젝트의 육성 및 도입으로 신흥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30% 이상 달성 - 첨단교통장비제조업 발전, 신형 궤도교통장비 제조분야 확대, 첨단기술 조선업 발전 - 국가사물인터넷산업기지 건설 가속화, 바이오의약·신소재·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실시
허난	- 장비제조·식품제조·신소재·IT제조·자동차제조 등 5대 주도산업의 규모화 발전 - 야금·건축자재·화학·경방직·에너지 등 전통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 스마트제조장비·바이오의약·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신에너지장비·차세대정보기술 등 신흥산업 육성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각 지방정부는 개혁과 함께 대외 개방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출입구조의 고도화(优进优出),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济贸易合作区) 건설을 통한 공급과잉산업의 해외 이전과 현지 생산네트워크 구축,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 각 지방정부는 일대일로전략 추진을 위해 인접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광둥과 광시는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동북지역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
- 텐진, 광둥, 산시, 네이멍구, 안후이 등 일부 지역은 국가간 산업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적극 건설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일부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현지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과잉공급의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국과의 생산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표 7. 2017년 주요 지역별 대외 개방 및 협력의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텐진	- 개방협력의 확대: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연선국가와의 무역·생산·자원 및 에너지·과학기술·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산시	- 해외 및 창삼각·주삼각·홍콩·대만 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 수용 - 일대일로 건설 참여를 위한 3년 계획 제정, 중·몽·러 경제회랑에 편입, 국제생산협력 추진 -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육성, 중점수출제품 지원정책 제정으로 산시성 제품의 수출 확대, 선진 설비 및 기술 수입 중점 지원, 가공무역기업의 역내 이전 적극 수용
네이멍구	-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융합,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적극 추진, 개방시험구(开放试验区)·해외경제협력구(跨境经济合作区)·종합보세구(综合保税区) 건설 가속화, 국제생산협력 강화, 해외산업단지 건설 지원
랴오닝	-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다례진푸신구(大连金普新区)·중독(선양)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건설 가속화, 다례 국경간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발전 촉진, 잉커우(营口) 중한투자무역협력구 기능 완비, 단둥(丹东) 연변개발개방시험구 건설 -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 국제종합교통운수대통로 구축,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산업의 국제협력 참여 추진
지린	-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융합,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건설 가속화, 자루비노항 등의 프로젝트 추진 - 제2기 중국~유럽 간 화물운송 정기열차 개통 - 창춘신구·중·싱가포르 지린식품구(中新吉林食品区)·훈춘국제협력시험구 등 산업협력단지 건설 및 발전, 투먼(图们)·지안(集安) 등 변경경제협력구 설립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율 8.0% 달성
헤이룽장	- 중·한 그래핀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 대러시아 협력을 중점으로 한 대외개방 구축, 러시아의 전방위적 협력 추진

표 7. 계속

지역	주요 내용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항저우·닝보) 국경간 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건설 추진, 해관특수구역에 대한 개혁·혁신의 가속화, 보세가공구 및 국경간 보세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발전, 신행 가공무역·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의 발전 촉진 - 기업의 해외 M&A 지원, 높은 수준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안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 규모 확대: 적극적인 대외무역촉진정책 실시, 자동차·장비제조·전자정보 등 제품의 수출 확대,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의 수입 확대, 핵심기술의 도입 강화 - 가공무역기업의 이전 적극 수용,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육성 -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강화: 외자의 특허경영방식에 의한 인프라건설 참여 장려, 외자기업의 국내 상장 및 채권 발행 지원, 중-독일·중-싱가포르 산업협력단지 건설 추진, 해외투자 적극 확대로 장비제조업 협력 강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적극 발전
푸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건설 추진: 중-아세안 해양협력중심지 건설 가속화 - 용자·국경 간 전자상거래·완성차수입·콜드체인·보세전시교역·항공기 수리 등의 육성 - 푸저우신구(福州新区)의 혁신발전 추진, 푸샤취안(福厦泉) 국가자유혁신시범구 건설 추진
산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제품 및 자본재 수출 비중 제고, 고급 소비재 수입 확대, 국내외 전자상거래 기업간 협력 심화
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창의·서비스 아웃소싱 등 서비스무역 수출 촉진 - 난창(南昌)·지우장(九江)·지안(吉安) 등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지정 지원
허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가속화, 공항경제종합시험구 건설 가속화, - 일대일로 전략 적극 참여, 중-유럽 간 정기열차노선 개통, 중앙아시아국가와의 농업협력 강화
후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혁신에 중점을 둔 후베이 자유무역구 건설, 무역편리화·투자자유화·외국인투자 진입 완화 적극 추진 - 일대일로 전략 적극 참여: 후베이성을 내륙개방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 우한(武汉) 신공항종합보세구 건설 가속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무역 적극 발전
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류 심화, 러시아 불가 연방관구 및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에티오피아-후난 장비제조협력단지 건설 추진, 장비·기술·표준·서비스 일체형의 해외투자 가속화 - 동유럽·중동·남미 등 시장 개척, 조립장비·궤도교통장비·바이오의약·농산물 등 수출 확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및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발전 지원, 핵심설비 및 중요 부품의 수입 지원
광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미국 등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경제무역협력 강화,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신흥국 시장 개척 -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 완비, 첨단기술·중요 장비 및 핵심부품 수입 확대, - 광저우·선전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 추진, 홍콩·마카오·광둥 서비스무역자유화 추진 - 국제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 광둥-Melaca Gateway 및 임해산업단지, 사우디아라비아-중국 산업클러스터, 이란 키슈자유무역구, 에티오피아-광둥 산업단지 등 해외단지 건설 - 중-아세안 자유무역구 발전, 중-남미 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중-러시아 무역산업단지 건설, 동아시아·남아시아·남태평양국가와의 협력 추진
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건설 참여: 중-말레이시아 친저우(钦州) 산업단지 신에너지산업발전플랫폼 건설, 중-아세안 기술이전센터 설립 추진, 중-베트남 국경간 경제협력구, 중-아세안 항구도시 협력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중-아세안 정보항(information harbor) 건설 가속화 - 중-말레이시아 양국양단지(两国两园), 동싱(东兴)·핑샹(凭祥) 국가중점개발개방시험구 건설 가속화 - 중-인도네시아 경제무역협력구, 중국-브루나이 위린(玉林)건강산업단지, 중-태국 산업단지 등 공동 건설 추진 - 친저우보세항-말레이시아 쿠안탄항 간 통관편리화 협력 강화, 중-베트남·중-말레이시아 간 검역일체화(两国一检)의 새로운 통관모델 추진, 아세안 지방정부와의 협력기제 구축, 우호도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의 신모델 적극 모색 - 산업해외발전기금 설립,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국제생산 및 농업협력 참여 지원,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3개 건설

자료: 각 성(省)별 2017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주요 지역의 2017년 핵심 정책

가. 동부

1) 베이징: 수도의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 조정²¹⁾을 통한 구조개혁

■ 신산업(新产业)·신업태(新业态)·신비즈니스(新商业) 모델을 지칭하는 이른바 ‘신경제’가 베이징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대도시병(大城市病)²²⁾ 문제가 여전히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을 중시²³⁾

- 신산업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신소재·바이오·환경 산업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문화창의산업 등의 전략적 신흥서비스업(战略性新兴产业), 첨단기술서비스업(高技术服务业)의 발전이 두드러짐.²⁴⁾
- 신업태는 ‘인터넷 플러스’와 연계된 온라인 소매, 온라인 금융 등을 포함하며, 2016년 베이징 소비재판매액의 증가분 중 온라인 판매가 51.2%에 달함.
- 한편 베이징시 시장(市长)은 대도시병 문제는 베이징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은 도시 정비 사업을 2017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정부는 중요한 국가전략(重大国家战略) 중 하나로 「징진지협동발전 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이하 ‘규획강요’)²⁵⁾를 시행 중인데, ‘규획강요’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세 지역의 통합발전 추진과 베이징의 비핵심적 기능에 대한 축소 및 조정을 강조함.²⁶⁾
- 13·5 규획기간 베이징은 ‘규획강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목표로서 2017년까지 비핵심 기능에 대한 순차적인 조정을 선결과제로 선정함.
- 베이징은 2017년 전체 예산(6,534억 위안)의 50% 이상을 징진지 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도시 정비(城市治理), 생태환경 개선 등의 5대 영역에 투입할 계획²⁷⁾

■ 2017년 베이징은 비핵심적인 수도 기능의 분산·이전을 통해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최적화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

- 베이징은 △ 제조업 △ 지역 도매시장(城区批发市场) △ 교육·의료 시설 △ 지방정부 행정기관 등 중에서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주변 도시로 점차 분산·이전시킬 계획임.
- 올해는 환경오염산업 퇴출목록(污染行业淘汰退出目录)을 개정하고, 500개 이상의 일반 제조기업 및 환경오염기업을 폐쇄할 예정

21) 중앙정부가 2014년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핵심기능 이외의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 공공서비스, 산업 등을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전을 추진

22) 대도시병은 인구과밀화로 야기된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난, 취업난 등의 도시문제를 의미함.

23) 「新经济领路2016北京GDP」(2017. 1. 23), 北京商报; 「蔡奇:北京治理“大城市病”还要下很大功夫」(2017. 1. 14), 人民网; 「2017年北京市人民政府工作报告解读」(2017. 1. 18), 东方网.

24) 北京市统计局(2017. 1. 24), 「北京市新经济发展快速」.

25) 2014년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후, 2015년 4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 회의에서「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통과됨.

26) 「京津冀协同发展, 以何为先导」(2015. 5. 2), 新浪网.

27) 「今年半数财政支出投向京津冀等领域 城市治理拟安排千亿资金」(2017. 1. 15), 人民网.

- 2020년까지 「베이징시 신규산업 금지·제한목록(北京市新增产业的禁止和限制目录)」²⁸⁾을 시행하여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한 기업의 퇴출, 노동집약적·자원의존형 제조업의 이전, 첨단산업 중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 또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밀집지역²⁹⁾의 조정과 더불어 베이징 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교육·의료 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지방정부 산하의 일부 행정기능을 통저우구(通州区)로 이전할 계획³⁰⁾
-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빠른 도시화를 추진하였던 통저우로 4대 행정기관 및 산하 부서가 연내 이전하면서 부도심(城市副中心)으로의 행정기능 분산이 본격화될 예정

2) 텐진: 징진지 협동발전전략과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

■ 텐진시는 과거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공업부문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목표성장률을 재차 하향 조정함.

- 텐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2017년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³¹⁾
- 특히 텐진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공업도시로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이 2014년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으나 2015년 9.3%, 2016년 8.4%를 기록하며 공업부문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
- 텐진시의 산업 중 장비제조업·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이 전체 공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기술 분야에 우위를 점하였던 과거와 달리 기술혁신 역량 부족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텐진시 정부는 올해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의 주도적인 추진과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

-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의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베이징·허베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징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주력할 방침³²⁾
- 텐진 빈하이-중관춘 과학기술원(天津滨海-中关村科技园), 미래과학성(未来科技城), 국가대학혁신단지(国家大学创新园区) 건설과 함께 산업협동단지, 산업기술혁신전략협회의 공동 설립을 추진하여 세 지역간 산업이전 기반을 조성
- 지난해 12월 출범한 텐진 빈하이-중관춘 과학기술원은 2018년까지 베이징 중관춘의 첨단기술기업을 빈하이신구로 이전, 중점 과학기술성과의 사업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³³⁾
- 대외개방 플랫폼으로서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외자유치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방침

28) 베이징은 2014년 「베이징시 신규산업 금지·제한목록(北京市新增产业的禁止和限制目录)」을 발표하여 수도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산업의 기업등록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 발표 후인 2015년도에 한차례 개정을 거침.

29) 9개의 대규모 도매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동우위안(动物园) 지역은 약 30만 m²의 면적에 도매업 종사자 3만 여명, 일일 6~7만 명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교통정체가 심각함.

30) 베이징시 정부는 2015년 7월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 시행에 관한 의견(中共北京市委北京市人民政府关于贯彻<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的意见)을 발표하고, 통저우를 행정부도심으로 확정하고 2017년까지 행정기능 분산효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힘.

31) 「2017년地方GDP增速目标大调整 经济增长模式亟待转变」(2017. 1. 17), 21世纪经济报道.

32) 「王春刚：2017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解读」(2017. 1. 22), 天津政务网.

33) 「滨海-中关村：京津冀协同创新发展」(2016. 12. 13), 中国经济时报.

- 「자유무역시험구 개혁발전 3년 행동방안(自贸试验区改革发展三年行动方案)」을 실시하여 국제무역 창구단일화 서비스를 개선하고, 금융제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등 새로운 대외무역 관련 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
-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국내·외 500대 기업으로부터 자본, 인재, 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³⁴⁾

3) 허베이: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 허베이성 정부는 2016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나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2016년 허베이는 GRDP가 처음으로 3조 위안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처음으로 철강산업을 추월해 허베이성 최대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보임.³⁵⁾
-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베이성 정부의 입장³⁶⁾
- 허베이성 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점으로 원자재가공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일부 산업에서의 심각한 공급 과잉, 취약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등이 지적되어 있음.

■ 허베이는 2017년 과잉생산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측 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전통산업 기반의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新旧动能转换)’을 적극 추진할 계획

- 허베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급측 개혁은 과잉생산설비의 대대적인 감축(坚决去), 전통산업의 구조조정(主动调), 신흥산업의 발전가속화(加快转)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³⁷⁾
- 중국 최대 철강생산지인 허베이는 철강산업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과잉생산설비 감축과 불법적인 생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임.³⁸⁾
- 허베이성은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6643 프로젝트³⁹⁾’를 시행하여 전통산업의 공급 과잉 해소를 추진해왔으며, 2017년에도 목표량 달성을 위해 철강(제강·제철) 생산설비 3,186만 톤을 감축할 계획임.
- 랑팡(廊坊)·바오딩(保定)·장자커우(张家口)의 철강 생산설비를 완전히 처분하고 청더(承德)·친황다오(秦皇島) 내 철강 생산설비 일부를 감축할 방침임.
-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강조

34) 「王东峰：瞄准国内外500强企业 深入推进开放合作」(2017. 1. 15), 人民网.

35) 「河北两会部署2017年经济社会发展九大工作任务」(2017. 1. 9), 中国证券网; 「河北经济结构调整加速 工业不再“一钢独大”」(2016. 12. 28), 新华社.

36) 「河北2017政府工作报告解读：“十三五”实现良好开局」(2017. 1. 9), 人民网.

37) 「走好发展新路坚实一步」(2017. 1. 9), 河北日报.

38) 「河北打响“6643”工程“收官战”：2017年将压减钢铁产能3186万吨」(2017. 1. 8), 新华社.

39) ‘6643 프로젝트’는 과잉생산이 심각한 산업의 생산설비 감축을 골자로 하며, 2017년까지 철강(钢铁) 6,000만 톤, 시멘트 6,100만 톤, 표준석탄 4,000만 톤, 평판유리 180만 톤의 생산설비 감축을 목표로 함. 工业和信息化部(2014. 3. 3), 「河北组织实施“6643”工程缩减过剩产能」.

- 2017년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13% 달성을 목표로 하고, 기술개조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7% 확대할 방침
- 전략적 신흥산업의 빠른 육성을 허베이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 첨단장비제조·차세대 정보산업·신에너지·청정에너지·신소재·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특수 로봇 등 7대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전자·인공지능·바이오의약 등의 발전을 중점 지원할 계획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통한 경제성장

■ 상하이시 정부는 2016년의 경제성과가 목표를 상회한 것으로 자평하였으나, 중앙에서는 상하이시 실물경제의 하방압력이 크다고 지적

- 상하이시 정부에 의하면 2016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첨단의료장비,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소기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⁴⁰⁾
- 반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상하이의 경제발전에 있어 자원·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제약요인이 부각되고 자본·토지·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이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⁴¹⁾
- 2016년 상반기 상하이의 중점 제조업의 수익률이 높지 않고 신규 투자 프로젝트도 예상에 못 미쳤음. 또한 기업대출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률이 상승하여 잠재적인 리스크가 보다 증가하였음.

■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으나 발전속도가 출범 초기의 전망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상하이에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고 출범 당시 3년 내 조성완료율 목표를 하였음.
- 상하이 시정부 측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로서 개혁조치 시행항목 수, 외자유치 실적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상하이시 내외부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
- 상하이시 정부산하의 발전연구중심(发展研究中心)에 따르면 제도 혁신과 무역투자 규칙 측면에서 상하이시와 글로벌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크며,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가 전략과의 연동이 부족하다고 지적⁴²⁾
- 2016년 유럽상공회의소에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조성 중인 자유무역시험구가 당초 예상했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³⁾

■ 상하이시 정부는 올해 국가 발전전략인 자유무역시험구와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계획⁴⁴⁾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 있어 국제금융·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과 푸둥신구(浦东新区)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중앙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금융개혁 40조(金改40条)」⁴⁵⁾ 시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

40) 「应勇：对上海经济发展充满信心」(2017. 1. 20), 人民网.

4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10. 9), 「上海江苏经济形势调研报告」.

42) 「自贸区探索的中国方案」(2016. 11. 22), 人民日报.

43) “China’s not-so-free trade zones lock foreign investors out of key industries”(2016. 9. 29), SCMP.

44) 「应勇：对上海经济发展充满信心」(2017. 1. 20), 人民网; 「上海市长应勇：“四新”成为上海经济发展新增长点」(2017. 1. 20), 中国新闻网; 「应勇：集中力量建设张江国家科学中心」(2017. 1. 20), 人民网.

45) 「金融 개혁 40조」의 정식명칭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혁혁신시범사업의 추진과 상하이 국제금융중심지건설 가속화 방안(进一

- 자유무역협정의 기능과 적용을 확대(시범구 이외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개설 허용)하고 금융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인 리스크 방지에 대해 강조
- 상하이시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국가발전을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창장종합국가과학센터(张江综合性国家科学中心) 건설을 비롯한 연구 인프라 조직 및 제반 지원사업을 추진
- 올해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 관련 핵심정책 목표로 창장종합국가과학센터(张江综合性国家科学中心) 건설, 광자(光子)기술·생명과학·나노기술·인공지능 등 분야의 국가실험실 건립, 창장과학도시(张江科学城) 건설을 제시
- 이외 과학기술연구 인재의 유치·육성 제도 정비를 강조하고, 기술이전 플랫폼 및 국가급 쌍창(双创·혁신과 창업) 시범기지 건설하며 금융기관의 기술혁신 투자를 고취

5) 광둥: 제조업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 진흥 도모

■ 광둥성은 올해까지 28년 연속 경제규모(GRDP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나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표출되었음.

- 광둥성 정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급감했던 2009년 당시 불거진 산업공동화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었으나, 2016년 12월 광둥성 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 중점업무로서 ‘산업공동화 방지’를 처음으로 제시⁴⁶⁾
- 일각에서 광둥성이 여전히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건비·토지·원자재 등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제조업이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산업가치사슬의 공백 발생 가능성을 제기
- 현재 광둥성이 경제규모 측면에서 전국 1위이나, 2위인 장쑤보다 경제성장 속도에서 뒤처지고 3위인 산둥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점을 들며 간접적으로 경제규모 추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⁴⁷⁾
- 광둥성 부성장(副省长)은 광둥성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을 뿐 경쟁력이 강하지 않으며, 핵심기술의 90%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글로벌 산업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
- 광둥성 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유희자본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

■ 광둥성 정부는 올해 지방양회에서 지역 경제발전 동력이 제조업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제조업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의 진흥을 강조

-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제조업 입성(制造业立省)’이 처음 등장
- 2016년 12월 광둥성 경제공작회의에서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부터 지금까지 제조업이 광둥성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왔고, 현재에도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물경제 진흥의 핵심은 제조업임을 천명함.
- 또한 ‘제조업 입성(制造业立省)’을 위한 4대 임무를 제시: ① 산업공동화 방지 ② 자주적인 기술개발(自主创新)을 통한 핵심 산업기술 장악 ③ 현재의 체계화된 산업가치사슬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경쟁우위 강화

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으로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실현, 위안화 국제사용의 확대,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 국제적인 금융시장 건설, 금융 감독관리 및 리스크 예방 강화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됨(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46) 「珠三角不会出现空心化」(2009. 7. 18), 羊城晚报; 「广东“加码”制造业: 防止产业空心化, 加快迈向中高端」(2016. 12. 27), 21世纪经济报道; 「广东首提“制造业立省”力推传统产业转型」(2017. 1. 20), 第一财经.

47) 「去年中国经济前三甲: 广东连续28年位列第一, 江苏山东紧随」(2017. 1. 24), 澎湃新闻.

④ 제조업 고도화 관련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신기술 응용 촉진

- 구체적으로 광둥성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广东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에서는 향후 자동제어 및 센서, 제조업 솔루션, 제조업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

나. 중부

1) 산시(山西): 석탄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선

■ 산시성은 2016년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⁴⁸⁾ 이는 석탄산업에 편중된 기형적 산업구조(一煤独大)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

- 기형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석탄산업의 위기가 산시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었음.
 - 2012년부터 석탄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과잉으로 이어졌고, 석탄가격 급락으로 인한 석탄산업의 침체가 산시성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2013년까지 산시성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 4.9%(31개 성시 중 최하위), 2015년 3.1%(30위), 2016년 4.5%를 기록
- 점진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음.
 - 2016년 석탄산업이 여전히 산시성 전체 공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시성 100대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이 석탄 관련 국유기업으로 100대 기업 전체 연매출액의 57%를 차지⁴⁹⁾

■ 산시성 정부는 올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할 방침임.

- 산시성은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성장속도보다 산업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비합리적인 산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힘.⁵⁰⁾
 - 2017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0.5%p 낮은 5.5%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목표치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남.⁵¹⁾
- 중앙의 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석탄 생산설비 및 탄광 운영 감축을 추진할 계획
 - 중앙정부에서 2016년부터 3~5년간 석탄 생산설비 5억 톤을 감축하고 탄광 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석탄산업의 생산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목표 제시⁵²⁾
 - 중국의 최대 석탄산지인 산시성은 2020년까지 1억 톤의 석탄 생산설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지난해에만 21개의 탄광을 폐쇄하고 생산설비 2,325만 톤을 감축하였으며, 2017년에도 2,000만 톤을 감축할 계획⁵³⁾

48) 산시성은 31개 지역 중에서 랴오닝성 다음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30省份2016年GDP增速：26省份跑赢全国 9地未达预期」(2017. 2. 13), 人民网; 「2016年山西经济低位企稳回升, 下半年好于上半年」(2017. 1. 28), 山西日报.

49) 「山西如何破解“一煤独大”“一股独大”?」(2017. 1. 24), 山西日报.

50) 「董一兵：唯有转型综改创新驱动 才能让老工业基地重振雄风」(2017. 1. 17), 人民网.

51) 「山西省2017年政府工作报告」(2017. 1. 23), 人民网.

52) 「国务院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 实现脱困发展的意见」(2016. 2. 5), 新华网.

53) 「山西省2016年化解煤炭过剩产能关闭退出煤矿名单增加至25座」(2016. 10. 11), 中国铁合金网.

- 또한 석탄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소재·신에너지·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바이오의약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
- o 산시성 정부는 전통적인 석탄기지를 신형종합에너지기지(新型综合能源基地)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⁵⁴⁾ 석탄 기반의 전통산업 기술개선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발전을 추진할 방침
- o 타이위안시(太原市) 시산국가신에너지시범구(西山国家新能源示范区)와 다통(大同), 창즈(长治), 윈청(运城) 세 개 지역에 신 에너지 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태양광·바이오매스(生物质能) 등 신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2) 후베이: 투자·소비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 후베이성 정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민간투자 급감과 산업혁신 역량 부족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했다고 평가⁵⁵⁾

- 2016년 중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전국 평균보다 1.4%p 높은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목표치인 9%에는 미치지 못함.⁵⁶⁾
- 후베이성 통계국은 전통산업의 고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흥산업 부문의 혁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⁵⁷⁾
- o 후베이는 중공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전히 중공업기업이 전체 공업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이 부족
- o 또한 기술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적고, 공업부문에서의 투자수익률(工业投资回报率)이 2011년 56%에서 2014년 42%로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후베이는 2017년 유효 투자 및 소비를 확대하고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방침

- 후베이성 정부는 산업·인프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사업(PPP)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증대시킬 계획⁵⁸⁾
- o 국가메모리산업기지·국가항공산업기지·텐마(天马) 6세대 저온다결정 실리콘 생산라인·GM자동차 2기 및 엔진프로젝트 건설 중점 추진하고, 우한~스옌·정저우~완저우 고속철 및 바오강~선닝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착공 예정
- o 후베이성 정부는 2017년을 민관협력사업 시행의 원년으로(PPP项目落地年) 지정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며 1억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 1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함.
- ‘10대 소비증진 계획(十大扩消费行动)’⁵⁹⁾을 적극 추진하고, 유효공급 확대를 통해 중고급 제품 및 서비스 소비를 촉진
- o △ 여행·문화·양로·건강스포츠 분야의 서비스 소비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정보소비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 및 제조 부문의 고급 제품 공급을 확대
-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스마트제조 시범사업(智能制造示范点示范)을 추진하고, 16개 우위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강화

54) 「山西：加快建设国家新型综合能源基地」(2016. 9. 21), 科技日报.

55) 「湖北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2017. 2. 3), 人民网; 「决不能让资金都流向房地产 代表委员支招避免经济脱实向虚」(2017. 1. 16), 湖北日报.

56) 「湖北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2017. 2. 3), 人民网; 湖北省统计局(2017. 2. 10), 「湖北经济实现“十三五”良好开局」.

57) 湖北省统计局(2015. 9. 21), 「全面提升湖北工业竞争力的思路与对策」.

58) 「2017, 湖北经济这样干」(2017. 1. 3), 湖北日报.

59) 이는 2016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 전환·업그레이드 촉진에 관한 행동방안(关于促进消费带动转型升级的行动方案)」중 ‘10대 소비확대 계획’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 전통산업의 기술 개선과 설비 개조에 주력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늘릴 계획임.
- 50개의 국가급·성급(省級) 스마트제조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1,000개 기업의 스마트화 개조를 실시하고 14개의 국가급, 26개의 성급 신흥공업화시범기지(新型工业化示范基地建设) 건설을 촉진
- 차세대 IT기술, 첨단장비 등 6대 중점영역과 집적회로, 광통신,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수치제어 장비 등 16개 우위업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방침

다. 서부

1) 충칭: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주산업 고도화 추진

■ 충칭시는 2016년 31개 성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자동차, IT제조 등 지주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 충칭시는 15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GRDP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며, 2016년에도 31개 성시 중 시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10.7%)을 기록함.
- 특히 과잉생산 해소에 따른 영향이 적은 충칭의 산업구조도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⁶⁰⁾
- 다만 자동차산업은 저부가가치 모델 위주의 발전과 핵심기술 부족으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IT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트북컴퓨터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입 규모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⁶¹⁾
- 충칭시 자동차산업의 주요 생산품목은 트럭, 소형차로 매출액과 차량 한 대당 이익률이 모두 낮은 상황임.
- 2016년 충칭시 수출이 전년대비 22.4% 감소하여 전년도(-12%)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이는 노트북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이에 지주산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충칭시 정부는 올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기술 강화 및 R&D 투자 확대, 첨단 IT산업의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충칭시는 2017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주산업의 고도화를 제시하고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 강화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시장을 육성할 계획
- 자동차의 스마트화·네트워크화·자율주행기술 및 동력전지 등 핵심부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창안자동차그룹(长安汽车城), 베이징현대(北京现代), 쑹타이(众泰) 등 프로젝트 유치로 생산능력을 강화하고자 함.⁶²⁾
- 신에너지자동차 및 스마트카 발전, 충전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영역에서의 전기자동차 이용 비중 제고
- IT산업과 관련하여 생산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자산업 핵심기초부품 공급체인을 구축
- 스마트폰은 충칭시의 새로운 IT제조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6년 충칭시의 스마트폰 생산규모는 1억 6,800만 대에 달해 새로운 IT제조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음.⁶³⁾

60) 中国投資銀行部 中国調査室(2016), 「中国各地域における産業構造の高度化が着実に進行 ~構造改革が新たなチャンスを生み出す」, BTMU (China) 経済週報.

61) 「重庆制造业诊断报告: 汽车电子两支柱产业升级换代需加速」(2017. 2. 8), 21世纪经济报道.

62) 「重庆市人民政府工作报告全文发布」(2017. 1. 24), 重庆日报.

63) 이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지인 중국 광둥성의 65%에 달하는 규모임. 「2017年重庆GDP增速目标10% 坚决遏制炒房行为」(2017. 1. 17), 21世纪经济报道.

- 충칭시 정부는 스마트폰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OPPO, VIVO 등의 스마트폰 생산설비 확충 및 BOE(京东方)의 스마트홈·웨어러블 관련 스마트장비 확충 등의 중점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HKC(후이커) 평면디스플레이 생산설비 가동 개시, 캉닝(康宁) 유리기관·AOS 집적회로·ALTUS(奥特斯) 2기 등에 대한 투자를 추진
-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과의 격차를 줄여 3D 프린팅기술·무인기·인공지능·서비스로봇·가상현실 등 산업항목에서의 기업유치와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의 발전 도모

2) 쓰촨: 투자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성장 추진

■ 쓰촨성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6년 GRDP 성장률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일부 산업에서 기업의 경영난 악화, 저조한 민간투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⁶⁴⁾

- 쓰촨성의 2016년 GRDP 성장률은 7.7%로 목표치를 0.7%p 상회하였음.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약 50%에 달하여 주요 성장요인으로 작용함.
- 고정자산투자, 소비재판매액, 공업부가가치가 각각 전년대비 12.1%, 11.7%, 7.9%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은 목표치를 2.1%p 상회
- 그러나 일부 중점 기업 및 업종에서의 생산량 감소와 민간투자의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가중됨.

■ 2017년 쓰촨성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2017년을 ‘프로젝트의 해’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추구함.

- 쓰촨성 정부는 최근 중점 추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인프라와 산업 투자를 골자로 하는 「2017년 쓰촨성 ‘프로젝트의 해’ 업무방안(2017年四川省“项目年”工作方案)」을 발표⁶⁵⁾
- 과거 쓰촨성의 중점 프로젝트는 200~500개 정도였으나 2016년 631개, 2017년에는 역대 최대인 700개에 달함.
- 700개 프로젝트의 총투자 규모는 3조 9,900억 위안이며 이 중 신규 추진 프로젝트는 267개 1조 4,000억 위안임.
- 분야별로 인프라와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크며, 투자규모는 각각 1조 7,900억 위안, 1조 7,800억 위안임.
- 또한 2월 「쓰촨성 중점프로젝트 관리방법(四川省重点项目管理办法)」을 발표, 프로젝트별로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민간자본의 합작방식을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고취하고자 함.⁶⁶⁾
-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9,000억 위안) 가운데 기술개조분야에 6,500억 위안을 투자하고 공업 부가가치를 8% 이상 증가시키고자 함.

표 8. 2017년 쓰촨성 중점 프로젝트의 분야별 투자 목표

분야	공업	교통	에너지	수리(水利)
투자규모	9,000억 위안	1,400억 위안	300억 위안	260억 위안 이상

자료: 「四川2017年“项目年”工作方案:各市州每季度至少组织一次集中开工」(2017. 2. 9), 四川日报.

64) 「2016年四川省完成全社会固定资产投资2.91万亿元」(2017. 2. 8), 四川新闻网; 「稳·进·好·忧 四字解读2016年四川经济“成绩单”」(2017. 1. 23), 四川日报.

65) 「四川2017年“项目年”工作方案:各市州每季度至少组织一次集中开工」(2017. 2. 9), 四川日报

66) 「四川省重点项目标准:新技术新业态不受投资规模限制」(2017. 2. 6), 四川新闻网 .

3) 산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 산시성은 지난해 비(非)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산시성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의 공업부가가치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짐.
- 산시성 경제는 투자주도 및 자원가격에 의존하고 있어 고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에 따라 2016년 핵심 정책과제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⁶⁷⁾
- 2016년 산시성의 경제성장률은 7.6%로 중국 평균(6.7%)을 상회하였고, 이는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비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기인함.⁶⁸⁾
 - 2016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고, 특히 인프라투자가 전년대비 31.9% 증가함.
 - 에너지산업과 비(非)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0.7%와 13.1%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공업부가가치에서 비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상승함(55.4 → 59.7%).
 - 비에너지 산업 중 컴퓨터·통신전자설비 제조와 장비제조의 부가가치가 각각 43.6%, 19% 성장하여 제조업 성장을 견인

■ 산시성은 2017년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비철금속, 야금 등 전통 우위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차세대 IT, 신소재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함.

- 산시성은 13·5 규획기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추격과 추월’ 전략을 강조해왔고,⁶⁹⁾ 올해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함.
- 산시성 정부는 2016년 제조업의 장기발전 비전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산시실시의견(中国制造2025陕西实施意见)」과 「안정적인 공업 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21개 조치(工业稳增长促投资21条措施)」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⁷⁰⁾
 - 산시성 정부는 화공·신소재·자동차 및 첨단장비제조·항공우주·차세대 IT·바이오의약의 6대 지주산업에 총 600억 위안의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외 집적회로(IC)·군민융합·빅데이터·공업기술개선 관련 산업발전기금을 조성
 - 비철금속·야금·건축자재·식품·방직·건축 등의 전통산업과 관련하여 200개의 중점 기술개조 프로젝트로 기술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최첨단 화학에너지 공업기지, 선진 제조업 및 항공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공업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 삼음.

67) 「陕西：经济下行压力倒逼转型“加速”」(2015. 11. 12), 新华网.

68) 「陕西2016年GDP增速7.6% 高于全国0.9个百分点」(2017. 1. 23), 华商报

69) 노수연·오종혁(2016),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서부지역」, KIEP.

70) 陕西省人民政府(2016. 6. 17), 「关于印发中国制造2025陕西实施意见的通知」; 陕西省人民政府(2016. 9. 12), 「关于印发工业稳增长促投资21条措施的通知」; 「陕西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2017. 1. 23), 人民网; 「陕西2017年将力争新能源汽车保持全国第一方阵」(2017. 2. 13), 三秦都市报.

라. 동북

1) 랴오닝: 국유기업 개혁 및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 추진

■ 랴오닝성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6%를 크게 하회하는 -2.5%를 기록, 31개 지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지방정부 중 유례가 없는 것으로 랴오닝성의 부진한 성장률의 주요 원인은 투자 급감과 과거(2011~14년) 허위 데이터의 조정 여파에 의한 것임.⁷¹⁾

○ 랴오닝성은 2012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8.7%(2013) → 5.8%(2014) → 3.0%(2015)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

○ 2014년 중앙정부 감찰에서 처음 랴오닝성 데이터조작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당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일부 반영하는데 그쳤으며, 2016년 데이터조작이 재차 발견되면서 랴오닝성 성장(省长)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작된 데이터를 일제히 조정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적으로 발표

- 201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대비 35.7%p 감소하여 전 지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63.5%)를 기록⁷²⁾

○ 랴오닝성 고정자산투자는 2015년 이래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는 실제 투자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3년 이래 허위로 작성된 수치 때문임.⁷³⁾

■ 랴오닝성 정부는 지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을 운영 효율성이 낮은 국유기업과 저조한 투자로 보고, 올해 국유기업 개혁과 투자·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 랴오닝성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아 성장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분 다원화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하고자 함.⁷⁴⁾

표 9. 랴오닝성 국유기업 개혁 관련 2016년 성과 및 2017년 목표

구분	2016년 성과	2017년 목표
국유기업 자본유치	569억 위안	1,000억 위안
부채비율	2.3%p 감소	5%p 감소
비용절감*	5.1% 감소	5% 감소
국유자본수익	15억 위안	20억 위안

주: * 비용절감은 경영·관리·재무비용(三项费用)을 의미함.

자료:「辽宁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2017. 1. 23), 人民网.

71) 「30省份2016年GDP增速:26省份领跑全国 9地未达预期」(2017. 2. 13), 人民网; 「国家统计局回应辽宁省数据造假:依法处理毫不手软」(2017. 1. 20), 中国经济网.

7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 1. 25), 「2016年东北地区固定资产投资同比下降」.

73) 梁红(2016. 7. 29), 「辽宁固定资产投资“断崖式下跌”简析」, 中金公司研究部.

74) 王雷軒(2017), 「地方の「两会」からみる2017年の中国経済」, 農林中金総合研究所.

- 또한 2017년을 ‘투자 및 비즈니스(营商) 환경 개선의 해’로 설정하고, 투자와 비즈니스 관련 영역에서의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 민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 국면을 돌파하고자 함.
- o 리커창 총리는 2016년 10월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추진회의(国务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推进会议)에서 동북지역 투자부진 현상에 대해 ‘투자가 동북지역에 미치지 못한다(投资不过山海关)’는 표현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변화를 촉구한 바 있음.⁷⁵⁾
- o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첫 번째 중점업무로 제시하고 2017년도 투자목표를 상향 조정(6 → 12%)하여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⁷⁶⁾
- o 2016년 12월 동북지역 최초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규범화 관련 성급 지방조례를 발표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업무 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강화, 조세체계 개혁 등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 제약이 되는 7가지 요소의 개선 행동을 실시할 계획⁷⁷⁾

2) 지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

- 2016년 지린성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6.9%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중국 평균 수준으로 회복⁷⁸⁾
 - 지린성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2015년 중국 평균대비 각각 0.8%p, 0.4%p 하회하였으나, 2016년 6.9%를 달성하며 중국 평균(6.7%) 이상으로 회복하였음.
 - o 동북 3성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하위 5위권에 머물며 대내외적으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음.
 - 지린성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이치(一汽)자동차, 지린화학(吉化), 수정제약(修正药业) 등 지역 대표기업의 운영실적이 개선되어 공업부가가치가 안정적으로 증가한 점을 꼽음.
 - o 일레로 1954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화학기업인 지린화학은 지난 10년간 적자상태였으나 사업구조 조정, 품질개선, 매출확대 등으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되었음.⁷⁹⁾
- 지린성정부는 2017년 노후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을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고도화를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자 함.
 - 지린성 정부는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동북지역의 신(新) 진흥을 중대 사명으로 적시하고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을 가속화할 것이라 언급
 - o 지린성 공업정보화청(工业和信息化厅)는 노후공업기지의 진흥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⁸⁰⁾
 - 자동차·석유화학·농산물가공·장비제조·건축재료(建材)·의약·생화학·IT·신소재·신에너지 등의 10대 업종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75) 「李克强：东北不能让投资不过山海关变现实 要优化营商环境」(2016. 10 19), 中国政府网.

76) 「时隔两年多地上调GDP目标增速 基建投资加码」(2017. 2. 19), 东方财富网.

77) 「辽宁省出台优化营商环境条例」(2016. 12. 8), 辽宁日报.

78) 「吉林GDP增长6.9% 展现东北经济重振新希望」(2017. 1. 15), 中国新闻网.

79) 「传奇!新中国化工“长子”吉林化工的扭亏之路」(2017. 1. 12), 中国吉林网.

80) 「2017年吉林省“两会”振兴发展主题新闻发布会」(2017.1.16), 吉林省人民政府.

- 자동차·석유화학·농산물가공 등 전통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의료산업의 중점기술 업그레이드 및 2차 개발을 추진
- 최근 지린성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장비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역량 개발, 클러스터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⁸¹⁾
- 향후 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완성차 및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화를 지원
- 창커(长客公司)의 고속철 전동차량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관한 R&D를 촉진하고, 민용 항공우주 데이터정보 및 첨단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해외생산기지 건설과 해외협력사업 추진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발전을 모색함.

3) 헤이룽장: 농업부문 공급측 개혁을 통한 농업의 현대화 추진

■ 농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헤이룽장성은 역대 취약한 작물재배구조와 중국 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 발전의 불확실성이 상존

- 2016년 헤이룽장의 전체 GRDP 중 1차 산업비중은 17%로 중국 평균(9%)을 상회하며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음.⁸²⁾
- 그러나 헤이룽장 농업은 저부가가치 작물에 편중되어 있고 작물구성이 단일하여 자연재해 및 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
- 헤이룽장성 재배품종의 95% 이상이 쌀, 옥수수, 콩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경작면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특히 농민 소득의 50% 이상이 이러한 재배업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침.
- 2017년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 재고과잉, 수입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⁸³⁾ 중국 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헤이룽장의 농업 발전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일례로 옥수수의 경우 2016년 중국 전체 재고량이 2.75억 톤, 생산량 1.96톤이었으나 소비는 1.78억 톤에 불과하여 공급 과잉 상태인 반면 콩의 경우 중국 전체 소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은 2017년 중점임무로 농업부문의 공급측 개혁을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을 제시함.

- 농업부문 공급측 개혁은 2015년 12월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바 있으며, 2017년 공급측 개혁의 영역이 공업에서 농업으로 확장⁸⁴⁾
- 헤이룽장성은 2014년부터 현대농업 발전에 관한 임무를 「정부업무보고」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대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급측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업무보고」의 제1순위는 현대농업발전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2016년에는 농업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중시한 바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6년 5월 헤이룽장성을 방문해 헤이룽장성이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도자(排头兵)가 되어야 함을 언급
- 헤이룽장성은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업의 시장화, 농업의 규모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업의 생태화를 주요 임무로 삼음(표 10 참고).

81) 「吉林出台重大举措支持新能源汽车加快发展」(2017. 2. 10), 中国工业报; 「吉林助推装备制造企业布局海外市场」(2017. 1. 24), 中国新闻网.

82) 헤이룽장성은 최대 양곡기지로 헤이룽장의 양곡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약 10%를 차지함.

83) 「农业调结构对准“三高”玉米大豆首当其冲」(2017. 2. 7), 证券时报网.

84) 「安信证券：一号文件发布在即 关注农业供给侧机会」(2017. 2. 2), 新浪网.

표 10. 2017년 헤이룽장성 농업현대화 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농업의 시장화	- 단일 품종, 단일한 구조로 초래되는 리스크에 대응 - 생산 및 재고 과잉 해소방안으로 품질 향상을 모색 - '인터넷+ 농업', 전문 프랜차이즈 영업 등 시장 판로 개척
농업의 규모화	- 가정농장 및 기업농장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교육을 통해 농업현대화를 추진 - 계약농업(订单农业)을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함.
농산물품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 정밀(精深) 가공업 발전 및 시장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산업가치사슬 확대
농업의 생태화	- 친환경 농산물 재배업의 발전 및 생태환경보호에 유리한 한지(寒地) 흑토(黑土)자원* 보호 프로젝트 실시 - 농업의 '세 가지 절감(三减, 화학비료, 화학농약, 화학제초제) 행동계획' 실시 및 농작물 폐기물 활용 확대

주: * 헤이룽장성 내의 흑토는 세계 3대 흑토 중 하나로 꼽히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유리함.

자료:「王宪魁:争当全国农业现代化建设排头兵」(2017. 1. 16), 人民网.

4. 평가 및 시사점

■ 2017년 중국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지시에 따라 경제구조 상 취약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조개혁의 성과는 지방정부의 추진의지와 역량에 달려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
- 현재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큰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 시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과거 중국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먼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후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을 감안할 때 지방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임.
- 구조조정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정책추진에 있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은 문제가 있으며, 이들 지역의 구조조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 2016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2016년 과잉생산 해소 등 공급측 개혁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으로 산업생산이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장률 둔화폭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특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수요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우 높은 투자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 각 지방정부는 올해에도 무리한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치중할 계획이어서 성장률이 2016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성장, 첨단산업분야의 발전, 소비 확대, 인프라 투자수요의 증대 등으로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 o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보다 경제의 질적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산업고도화의 진전,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혁신능력의 증대 등 공급측 개혁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성장률의 등락보다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주요 지역을 살펴본 결과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산업구조조정, 신성장동력 모색 등을 2017년 핵심 업무로 제시하였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지역과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는 지역 모두 경제발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을 대표하는 양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등 각각 국가전략사업인 징진지 협동발전전략 추진과 자유무역시험구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통해 대도시 경제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가적 과제인 금융개혁의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
- 기존에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던 충칭과 텐진은 2017년 들어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각각 지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전략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던 광둥의 경우 제조업의 비교우위 상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 우위를 활용하면서 핵심산업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
- 허베이, 산시, 산시는 자원가격의 변화에 취약하고 특정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이 유망한 산업군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주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

■ 환경보호 강화, 산업재배치, 서비스 소비 촉진, 농업 현대화 등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철강·석탄 등 환경오염 유발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산시는 낙후된 석탄가공 기술을 친환경·고효율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탄소 저감기술 등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진출 및 협력 기회를 모색
- o 2017년 우리나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중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산둥·허베이·산시(山西)에서 랴오닝·네이멍구로 확대하여 양국의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따라서 관련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정부협력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⁸⁵⁾
- 징진지 협동발전의 추진으로 산업재배치가 예상되므로 징진지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간 산업이전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o 베이징은 에너지 고소비·환경오염 업종 및 노동집약적·자원의존형 제조업을 텐진과 허베이로 이전하며, 텐진은 선진제조업 R&D 기지로서 베이징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허베이는 물류 및 생산기지로 활용될 계획임.
- 중부지역 중 후베이는 여행·문화·양로·건강·스포츠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고 고급 식품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며,

85) 환경부 보도자료(2017. 1. 6), 「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지 걱정은 줄인다_2017년 환경정책」.

또한 스마트 기기 및 O2O 서비스를 활용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북지역 중 헤이룽장은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축산업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음.
- o 헤이룽장성 정부에 따르면 과거 식량작물을 국가가 수매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친환경 생태 농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축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및 관련기업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⁸⁶⁾

■ 각 지방정부는 개혁과 더불어 지속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리스크요인과 새로운 기회요인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관련국가와의 무역·생산·에너지·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o 각 지방정부는 과잉생산설비의 해외 이전과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해외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생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경제협력지역이므로 중국의 해외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수출입 고도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 고도화와 서비스부문으로의 교역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o 지역별로 자국 내 공급이 어려운 고급 소비재나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중국의 정책변화를 이용한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
- o 대부분의 지역은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관광·의료·문화·레저 등 서비스소비 증진과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업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EP**

86) 「중헤이룽장성 루하오 성장 "韓기업 투자유치·교류협력 확대"」(2016. 1. 24), 연합뉴스.

참고문헌

[국문자료]

- 「中 하이룽장성 루하오 성장 "韓기업 투자유치·교류협력 확대"」. 2016. 연합뉴스. (1월 24일)
- KIEP 북경사무소. 2016. 「중국경제 평가와 중장기 변화」. 『한중경제포럼』. (11월 3일)
- KIEP 북경사무소. 2017. 「2016년 중국 거시경제 평가와 2017년 전망」. 『한중경제포럼』. (1월 25일)
- 노수연·오종혁.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서부지역」. KIEP.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 이상훈, 김주혜.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KIEP.
- 정지현, 박진희.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중부지역」. KIEP.
- 환경부 보도자료. 2017. 「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지 걱정은 줄인다」. (1월 6일)

[중문자료]

- 「2016可省份GDP出炉, 经济增长西部最快东北最弱」. 2017. 央广网. (2月 13日)
- 「2016年四川省完成全社会固定资产投资2.91万亿元」. 2017. 四川新闻网. (2月 8日)
- 「2016年山西经济低位企稳回升, 下半年好于上半年」. 2017. 山西日报. (1月 28日)
- 「2017, 湖北经济这样干」. 2017. 湖北日报. (1月 3日)
- 「2017: 地方国企 改革落实之年」. 2016. 中国企业报. (12月 13日)
- 「2017年路线图将划定 钢铁煤炭行业去产能再发力」. 2017. 中国证券报. (1月 26日)
- 「2017年环境污染怎么治? 多地定下“小目标”」. 2017. 中国新闻网. (1月 19日)
- 「2017年北京市人民政府工作报告解读」. 2017. 东方网. (1月 18日)
- 「2017年重庆GDP增速目标10% 坚决遏制炒房行为」. 2017. 21世纪经济报道. (1月 17日)
- 「2017年地方GDP增速目标大调整 经济增长模式亟待转变」. 2017. 21世纪经济报道. (1月 17日)
- 「28省区市地方两会闭幕 百余名省领导履新」. 2017. 人民网. (1月 24日)
- 「28省市召开地方两会 “去产能”仍是2017工作重点」. 2017. 人民网. (1月 18日)
- 「30省份2016年GDP增速: 26省份跑赢全国 9地未达预期」. 2017. 人民网. (2月 13日)
- 「去年中国经济前三甲: 广东连续28年位列第一, 江苏山东紧随」. 2017. 澎湃新闻. (1月 24日)
- 「决不能让资金都流向房地产 代表委员支招避免经济脱实向虚」. 2017. 湖北日报. (1月 16日)
- 「京津冀协同发展 以何为先导」. 2015. 新浪网. (5月 2日)
- 「继续吹响供给侧改革号角——聚焦今年地方两会」. 2017. 人民网. (1月 23日)
- 「国家统计局回应辽宁省数据造假: 依法处理毫不手软」. 2017. 中国经济网. (1月 20日)
- 「国企改革北京探索」. 2017. 经济日报. (2月 5日)
- 「国企改革呈现四大趋势 首批混改试点即将启动」. 2016. 证券日报. (11月 14日)
- 「国务院: 10省市和5个国家级新区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 2016. 证券时报网. (2月 14日)
- 「国务院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 实现脱困发展的意见」. 2016. 新华网. (2月 5日)
- 「今年半数财政支出投向京津冀等领域 城市治理拟安排千亿资金」. 2017. 人民网. (1月 15日)

- 「吉林GDP增长6.9% 展现东北经济重振新希望」. 2017. 中国新闻网. (1月 15日)
- 「吉林助推装备制造企业布局海外市场」. 2017. 中国新闻网. (1月 24日)
- 「吉林出台重大举措支持新能源汽车加快发展」. 2017. 中国工业报. (2月 10日)
- 「农业调结构对准“三高” 玉米大豆首当其冲」. 2017. 证券时报网. (2月 7日)
- 「党中央国务院严肃查处两起钢企违法违规事件 确保政令畅通 令行禁止」. 2016. 新华社. (12月 26日)
- 「董一兵：唯有转型综改创新驱动 才能让老工业基地重振雄风」. 2017. 人民网. (1月 17日)
- 「辽宁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 2017. 人民网. (1月 23日)
- 「辽宁省出台优化营商环境条例」. 2016. 辽宁日报. (12月 8日)
- 「李克强：东北不能让投资不过山海关变现实 要优化营商环境」. 2016. 中国政府网. (10月 19日)
- 「滨海一中关村：京津冀协同创新发展」. 2016. 中国经济时报. (12月 13日)
- 「四川2017年“项目年”工作方案：各市州每季度至少组织一次集中开工」. 2017, 四川日报. (2月 9日)
- 「四川省重点项目标准：新技术新业态不受投资规模限制」. 2017. 四川新闻网. (2月 6日)
- 「山西：加快建设国家新型综合能源基地」. 2016. 科技日报. (9月 21日)
- 「山西省2016年化解煤炭过剩产能关闭退出煤矿名单增加至25座」. 2016. 中国铁合金网. (10月 11日)
- 「山西省2017年政府工作报告」. 2017. 人民网. (1月 23日)
- 「山西如何破解“一煤独大”“一股独大”？」. 2017. 山西日报. (1月 24日)
- 「上海市长应勇：“四新”成为上海经济发展新增长点」. 2017. 中国新闻网. (1月 20日)
- 「时隔两年多地上调GDP目标增速 基建投资加码」. 2017. 东方财富网. (2月 19日)
- 「新经济领路2016北京GDP」. 2017. 北京商报. (1月 23日)
- 「安信证券：一号文件发布在即 关注农业供给侧机会」. 2017. 新浪网. (2月 2日)
- 「广东“加码”制造业：防止产业空心化，加快迈向中高端」. 2016. 21世纪经济报道. (12月 27日)
- 「广东首提“制造业立省” 力推传统产业转型」. 2017. 第一财经. (1月 20日)
- 「王东峰：瞄准国内外500强企业 深入推进开放合作」. 2017. 人民网. (1月 15日)
- 「王春刚：2017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解读」. 2017. 天津政务网. (1月 22日)
- 「王宪魁：争当全国农业现代化建设排头兵」. 2017. 人民网. (1月 16日)
- 「稳、进、好、忧 四字解读2016年四川经济“成绩单”」. 2017. 四川日报. (1月 23日)
- 「应勇：对上海经济发展充满信心」. 2017. 人民网. (1月 20日)
- 「应勇：集中力量建设张江国家科学中心」. 2017. 人民网. (1月 20日)
- 「自贸区探索的中国方案」. 2016. 人民日报. (11月 22日)
- 「传奇!新中国化工“长子”吉林化工的扭亏之路」. 2017. 中国吉林网. (1月 12日)
- 「珠三角不会出现空心化」. 2009. 羊城晚报. (7月 18日)
- 「走好发展新路坚实一步」. 2017. 河北日报. (1月 9日)
- 「重庆市人民政府工作报告全文发布」. 2017. 重庆日报. (1月 24日)
- 「重庆制造业诊断报告：汽车电子两支柱产业升级换代需加速」. 2017. 21世纪经济报道. (2月 8日)
- 「中国国企改革：从改什么到怎么改」. 2016. FT中文网. (5月 10日)
- 「中国环境问题包含环境污染严重、环境风险高，生态损失大三方面」. 2016. 中国政府网. (2月 18日)
- 「地方两会看京津冀治霾：“减煤”成今年重点 主政者频表态」. 2017. 人民网. (1月 17日)
- 「地方两会定调楼市“促稳”成关键词」. 2017. 21世纪经济报道. (1月 19日)
- 「蔡奇：北京治理“大城市病”还要下很大功夫」. 2017. 人民网. (1月 14日)
- 「天津市发改委主任薛新立解读今年GDP增长为何定为8%」. 2017. 天津日报. (1月 17日)

- 「天津自贸试验区挂牌一周年 勇闯改革“深水区”」. 2016. 天津网. (4月 22日)
- 「河北2017政府工作报告解读：“十三五”实现良好开局」. 2017. 人民网. (1月 9日)
- 「河北两会部署2017年经济社会发展九大工作任务」. 2017. 中国证券网. (1月 9日)
- 「河北打响“6643”工程“收官战”：2017年将压减钢铁产能3186万吨」. 2017. 新华社. (1月 8日)
- 「陕西：经济下行压力倒逼转型“加速”」. 2015. 新华网. (11月 12日)
- 「陕西2016年GDP增速7.6% 高于全国0.9个百分点」. 2017. 华商报. (1月 23日)
- 「陕西2017年将力争新能源汽车保持全国第一方阵」. 2017. 三秦都市报. (2月 13日)
- 「陕西省人民政府2017年《政府工作报告》」. 2017. 人民网. (1月 23日)
- 工业和信息化部. 2014. 「河北组织实施“6643”工程缩减过剩产能」. (3月 3日)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上海江苏经济形势调研报告」. (10月 9日)
- _____. 2017. 「2016年东北地区固定资产投资同比下降」. (1月 25日)
- 国务院办公厅. 2016. 「关于江苏华达钢铁有限公司和河北安丰钢铁有限公司违法违规行为调查处理情况的通报」. (12月 29日)
- 吉林省人民政府. 2017. 「2017年吉林省“两会”振兴发展主题新闻发布会」. (1月 16日)
- 梁红. 2016. 「辽宁固定资产投资“断崖式下跌”简析」, 中金公司研究部.
- 李超. 2017. 「各地“头号任务”中的投资机会」, 华泰证券.
- 北京市人民政府. 2017. 「2017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 北京市统计局. 2017. 「北京市新经济发展快速」. (1月 24日)
- 山西省人民政府. 2017. 「2017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
- 天津市人民政府. 2017. 「2017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
- 河北省人民政府. 2017. 「2017年河北省政府工作报告」.
- 陕西省人民政府. 2016. 「关于印发工业稳增长促投资21条措施的通知」. (9月 12日)
- _____. 2016. 「关于印发中国制造2025陕西实施意见的通知」. (6月 17日)
- 湖北省人民政府. 2017. 「2017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
- 湖北省统计局. 2015. 「全面提升湖北工业竞争力的思路与对策」. (9月 21日)
- _____. 2017. 「湖北经济实现“十三五”良好开局」. (2月 10日)

[일문자료]

- 中国投资银行部 中国调查室. 2016. 「中国各地域における産業構造の高度化が着実に進行 ～構造改革が新たなチャンスを生み出す」, BTMU (China) 経済週報.
- 王雷軒. 2017. 「地方の「两会」からみる2017年の中国経済」, 農林中金総合研究所.

[영문자료]

- "Air pollution costs trillions and holds back poor countries, says World Bank." 2016. *The guardian*. (Sep 8)
- "China's not-so-free trade zones lock foreign investors out of key industries." 2016. SCMP. (Sep 29)

[웹사이트]

- 北京市人民政府. <http://www.beijing.gov.cn/>.

天津市人民政府. <http://www.tj.gov.cn/>.

河北省人民政府. <http://www.hebei.gov.cn/>.

山西省人民政府. <http://www.shanxigov.cn/>.

湖北省人民政府. <http://www.hubei.gov.cn/>.